

『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명칭을 구미성리학역사관으로 변경하고,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조문 정비 및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역사문화디지털센터 명칭을 구미성리학역사관으로 변경
- 역사관의 정의, 업무 규정 정비(안 제2조, 제3조)
- 개관 및 이용에 관한 조문 정비 및 규정 신설(안 제4조~제9조)
- 편의시설, 교육·체험프로그램,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0조~제12조)
- 운영위원회 기능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(안 제21조~제22조)
- 대관 규정 신설(안 제28조~제3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등

-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명칭 공모 결과 전시콘텐츠의 핵심주제인 성리학을 반영한 ‘구미성리학역사관’으로 명칭이 결정됨에 따라 시설 명칭을 구미성리학역사관으로 변경하고,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구미성리학역사관의 관리·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임.
- 구미성리학역사관은 2010년 5월 경상북도 3대문화권 조성 전략 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려말 야은 길재부터 근현대까지 인재향 구미의 역사인물과 영남 성리학에 대한 자료를 전시·체험하는 시설로 금오산 일원에 조성중이며 오는 9월 개관할 예정임.

○ 검토 결과,

- 선대의 고고한 정신문화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해 나가고 향토역사 문화와 첨단디지털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-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구미성리학역사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